

교회목표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11:40)

순례자

발행인:이 종 윤
편집인:나 희 주
편집주간:원 필 현
발행처:서울 장로 교회
주 소:서울 강남구 논현동 165-18
전 화:517-7651~5
F A X:512-1225

93년도 교회 표어 :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홍해작전개시

—6월 6일(주일) 새벽 5시—

우리 교회는 오는 6월 6일(주일)부터 20일(주일)까지 15일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시79:9)라는 주제하에 홍해작전(사령관:이종윤 목사, 참모장:유윤진 장로)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작전은 말씀의 재발견과 영적회개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세위드리고,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의 건축문제와 더 나아가 민족의 복음화와 국가와 세계를 향한 서울교회의 시대적 사명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교인이 전심으로 합심 기도하는데 있다.

매일 새벽 5시부터 연합 성가

대의 찬양과 이종윤 목사의 시대에 도전케 하는 메시지가 있을 예정이다.

주제 찬송은 245장(시온성과 같은 교회)이며, 표어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시100:2)이다. 행동강령은 ①기도의 불씨가 된다. ②신행일치의 삶을 산다. ③날마다 전도하는 생활을 한다.

따라서 전교인의 참여를 위해 교구장, 지역장, 다락방장들의 역할을 기대하며, 특별히 직분자들에게 차량 동승 계획이나 성도들의 편의를 도모하여 사랑과 믿음의 교제가 있게 되길 기대한다.

제4회 김치세미나 은혜중에 진행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바라보며 기도로 준비한 제4차 김치세미나가 5월 26일(수) 오전 9시에 개강예배를 드림으로써 시작되었다.

이번 세미나에는 가나를 비롯한 21개국 29명의 교회지도자들이 참석하였다.

개강예배는 킨슬러 목사의 사 회로 박철훈 장로의 기도와 박태 회 집사의 특송이 있었으며 이종 윤 목사는 설교에서 서울교회를 소개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개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강연

을 한 후 이번에 참석한 목회자들이 김치세미나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특히 한국의 새벽기도회와 통성기도를 주의깊게 볼 것을 말씀했다.

참석자들은 매일 아침 새벽기도회에 참여하고 아침 10시부터 시작되는 강의와 토의가 있을 후 오후에는 예정된 프로그램에 따라 여러 곳의 교회와 기독교 대학 및 기도원 등을 방문하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도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가 함께하기를 바란다.

신약에 나타난 남·녀의 문제(3)

—우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

※ 편집자주 :이 글은 제16회 권사, 장로 부인세미나에서 이종윤 목사님이 ‘신약에 나타난 남·녀의 문제’라는 주제로 강의한 내용으로 5회에 걸쳐서 연재한다.

Ⅲ. 교회와 여자

복음 안에서 완전히 자유한 존재로서의 여자가 아직도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남녀에 대한 관계가 문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성경은 교회에서의 여자의 위치를 주제로 특별히 다루고 있다. 복음의 빛에 비추어 볼 때 여성은 남성과 다름없이 교회 안에서 모든 권위와 위치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신약성경은 이 문제를 매우 조심스럽게 다룬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자는 남성만이 아니고 여성도 있었다(행2:18). 그날 이후 여성도 남성과 같이 받은 성령으로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 예언하는 자(행21:9), 안수 받은 집사(롬16:1, 딤후3:11에서 여자들도 단정하고 참소치 말고 절제하며 충성하라는 것은 여집사를 두고 한 말씀) 또는 사도의 조수(빌4:3)로서 여성 가운데 초대교회를 섬긴 이들이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은 여성들의 활동상을 볼 수 있다. 여성 안수 문제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우리 교회의 상황은 성경적으로 여성이 안수 받을 수 없는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이 시대가 ‘아직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고전 11:3-16에서 사도는 교회안에서 여성의 봉사 역할을 상론하고 있다. 여성도 교회 안에서 기도와 예언을 회중 가운데서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v.5).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한 것은 여성의 머리 스타일이 아니다. 교회의 권위라는 차원에서 남녀가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존경과 권위의 싸인으로 머리에 베일을 쓰도록 한 것은 당시 사회의 풍습을 들어 말한 것이지 베일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존경과 권위의 중요성을 가르친 것이다. 교회 봉사의 영역에서 여성의 위치가 있음을 바울은 여기서 강조한 것이다.

고전 14:34-35은 여성의 교회에서의 역할을 부정한 말씀처럼 들린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함을 허락함이 없나니” 한 것은 11장의 말씀과 상반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성경을 항상 전체적으로 읽어야 한다. 고전 14:33의 연속으로 34절을 읽게 되면 당시 교회 안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여자들의 말로 인해 생겨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가 있게 된다. 따라서 바울은 다른 교회에서도 그러했던 것 처럼 고린도 교회에서도 여자들이 좀 조용해야겠다는 것이다. 어떤 주석가들은 34절과 35절은 바울의 기록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서 33절에서 36절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주장과 몇개의 사본제 시도 있으나 이같은 설은 교회에서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혹자는 여자로 하여금 질서를 따라 정당한 발언을 하는 것을 금한 것이 아니고 불필요한 제갈거름을 금한 것이라 하나 이같은 이론도 받을 만한 근거가 없다.



☐...How Wonderful KIMCHI is!
How Sweet are Thy Words unto my taste!
Yea, Sweeter than honey to my mouth!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은 결코 삶의 수단이 될 수 없다. 오직 삶의 이유요 궁극적 목적일 뿐이다.

요한복음강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라’ (요한복음 20: 29)



복된 믿음

이종윤 목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마치 손의 안과 바깥처럼 저주와 축복을 함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첫장에서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축복으로 성경은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도 마지막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생육할 수도 있고 번성할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창 12장 2절에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창대케 되고 잘 이루어 나갈 것임을 창 35: 9에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야곱이 하나님을 믿게도 하고 돌을 쌓아 감사의 예배도 드리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는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죽어도 복을 받은 자요 진정한 복은 주 안에 있을 때 받는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눅 11: 28에서는 말씀을 듣는 자와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다섯번째로 말씀하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1. 보지 않고 믿는 자

주님께서하신 이 말씀은 주관적 신앙이 복되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만족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 이 만족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음을 우리

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환상이나 기적 또는 세상의 체험을 증거로 보여 달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이 보여 주신 만큼, 그 말씀을 만족스럽게 믿는 것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을 들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끝까지 불신자로 남고 말았습니다. 환상과 기적을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환상이나 기적을 보게 되면 더 잘 믿게 될 줄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다는 말씀은 기적과 환상을 보지 않아도, 무슨 증거를 갖지 아니해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하신 말씀과 이미 베풀어 주신 일로 만족하며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특별하고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라고 기대하면 안됩니다. 그런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만일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는 논리이므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매우 유치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의 단계를 훨씬 뛰어 넘어서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성숙한 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에는 아주 긴급하게 기적을 보이시는 경우도 있고 고린도전서 12장 9절 이하에 보면 여러 종류의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것이지만 믿음의 크기와 강도에 따라서 은사를 주신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기초 위

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위에서 행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복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기초 위에서 말씀만을 토대로 하여 아름다운 복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2. 복되다

요한복음에는 ‘믿음’ 혹은 ‘믿는다’라는 말이 89회 나옵니다. 이것은 다른 책에 비해 믿음이 굉장히 강조된 것을 의미합니다. 보지 않고 말씀을 기초해서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열가지 복을 제목만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기다리겠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자는,

(1)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십니다(요1: 12).

(2)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요3: 16).

(3)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복을 주십니다(요5: 24).

(4)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복을 주십니다(요6: 35).

(5) 마지막 부활과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복을 주십니다(요6: 40).

(6)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다 큰 사람에게 주는, 복의 기관이 되는 복을 주십니다(요7: 38-39).

(7)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을 주십니다(요11: 40).

(8) 어두움에 거하지 않는 복을 주십니다(요12: 46).

(9) 전도와 증거를 할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요14: 12).

(10) 구하는 기도에 응답의 대상이 되는 복을 주십니다(요17: 20).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신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한번만이라도 내게 기적을 보여 주시거나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거나 꿈이라도 환상을 보여 주시면 내 믿음이 좀 강해지고 하나님만 따라갈 텐데 하고 생각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는 우리 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신 분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믿으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온다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회자세미나
제3학기 수강 안내

주제: 급변하는 사회와 교회갱신

일시: 3월 29일~6월 7일

매주 월요일 오후 2시~5시 20분

장소: 서울 강남 YMCA 강당

연락처: 한국교회갱신연구원

TEL: 517-7651~5 (서울장로교회)



아프리카를 함께 바라보자

이번 김치세미나에 참여한 27명의 아프리카 교역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한다. 언어·피부색깔·음식·복장 등 문화가 상이한 곳에서 지구를 반바퀴나 돌아 먼길을 오신 분들에게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한다.

이분들은 관광객이 아닌 복음의 순례자들이다. 요원의 불길처럼 도도히 타오르는 성령이 불길을 체험하고 스스로 작은 불씨가 되어 빈곤과 질병 그리고 온갖 우상 속에서 시달리는 영혼들을 일깨울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어느 누구도 방관자가 되지 말고 따뜻한 가슴으로 이들을 보살피는 「신앙의 모범」을 우리들의 일거수 일투족에서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 사도 바울의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생각하고 우리는 눈을 들어 아프리카를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자.

그래서 김치세미나를 아름다운 기억으로 영원히 간직할 뿐 아니라 이번 세미나가 아프리카의 새벽을 깨우는 청아한 종소리가 되도록 하자.

김치세미나 스케치

은혜롭게 진행되는 김치세미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오랫동안 기도와 물질과 시간을 바쳐 준비한 제4회 김치세미나가 지난 26일 개최되었다.

에디오피아, 말라위 등을 비롯한 21개국 30명의 교역자들은 긴 여정의 피로함도 잊은채 입국 즉시 등록을 하고 서울교육문화회관 유스호스텔에 유숙하며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한국 교회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새벽기도회에 매일 참석하며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 29일(토요일) 오후에 있었던 양수리 기도원에서의 산상기도회는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음을 참석자 모두는 말한다.

또 한가지 이들은 자원 봉사자들에게도 대단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에게 날마다 맛있는 점심을 제공하기 위해 교회 식당에서는 루디아와 마리아 여전도회 회장단이 수고하고 있으며 그 밖에 많은 봉사자들이 이루말할 수 없는 수고의 땀을 흘리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앞으로 오는 수요일 I부 예배에서 폐회예배를 드림으로써 마치고 되는데 앞으로 남은 3일간의 일정, 동안 수고하실 강사들과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하시기를 기도해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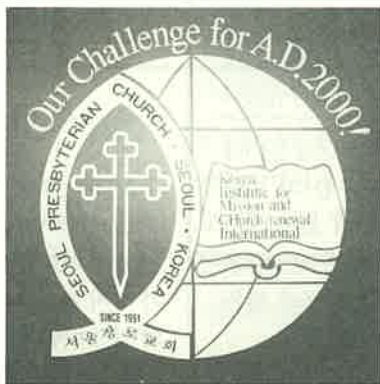
▲개회예배:아프리카를 바라보자



▲대단했었군요(올림픽공원)



▲한국의 음식 맛은 어떨습니까?



▲새벽기도회 주여, 아프리카를 도우소서



▶강의중: 한국교회가 이렇군요



◀비원에서 함께

순례자칼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김 중 수 장로(할렐루야 찬양대)

요즘 언론에 비치는 우리나라의 모습이 온통 부정으로 가득차 있는 것 같고 비판과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 그러나 어느 누구인들 남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 우리는 돌을 던질 수 있는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없으며 또 돌을 맞아도 할말이 없는 사람임에는 틀림없다.

예수님 당시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열여덟명이 죽음을 당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죽은 사람들이 죽지 않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것인지의 여부는 말씀하시지 않고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라고만 하셨다. 죽은 사람과 그 자리에 없어 화를 면한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를 것이 없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일을 당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말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회개하고 보다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결심을 굳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열매를 찾고 계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는 완전한 속사람의 변화이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 복음 전도에 힘쓰는 것, 그 밖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여러가지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이 좋은 열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좀더 깊이 생각하면 이것들은 열매의 결과인 것이다. 열매는 하나님을 위하여 분주하게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겠다는 열의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속사람의 표현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있는 것은 그 원천부터 가치가 있어야 한다.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위는 선한 성품에서만 나올 수가 있다.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함으로써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행함으로써 선한 행동이 가능한 것이라고 A.T. 피어슨은 말한다. 우리 자신이 진정 변화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고 있으나 내 속에는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르는 너무도 큰 돌보가 자리하고 있으며 나 스스로 선한 열매 맺을 수 없는 돌감람나무일 수 밖에 없음과 그러기에 주님 앞에 무익한 종임을 고백할 뿐이다.



모친)와 임은순 성도(잠실1 다락방 이순일 성도 부인)가 지난 27일(목) 소천하여서 29일(토) 이종윤 목사의 집례로 은혜롭게 장례를 치루었다. 성도들의 많은

■라성녀 성도(김재호 목사 위로가 있기를 바란다.

KIMCHI세미나에 초청된 나라들 ⑦

잠비아

(Republic of Zambia)



잠비아는 거대한 숲으로 이루어진 정글의 나라이다. 남한의 5배 정도의 국토면적에, 83개 종족이 함께 어우러져 700만의 인구를 이루고 있다. 83개 종족은 크게 다섯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뱀바족(37%), 통가족(19%), 니안자족(15%), 말배족(8%), 로찌족(7%), 그리고 그리족들(11%)로 구분된다.

공용어로는 영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사용되는 언어들은 무려 31개나 되는 실정이다. 성경번역은 신구약완역 15개, 신약 7개가 있는 실정이다.

정치적으로 잠비아는 1964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으며 1개 당에 의한 민주체제를 형성하고 있으며 주변국가들의 혁명과 전쟁들의 정치적 사건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60, 70년대 구리의 채광과 제련업에 의존한 결과 경제적 불균형과 쇠퇴를 자초했다. 그후 국가경제로 무시되었던

농업이 재강조되었다.

종교적으로 보면 잠비아는 종교의 자유를 개인의 귀중한 특권으로 보장한다. 학교 종교교육에서도 교회와 조화를 이루고 있고, TV나 라디오에서도 기독교 프로그램이 자유롭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종교적 현황을 보자면, 잠비아 전통 종교 21%, 무슬림 0.3%, 기독교 77%(실제 56.5%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 중 기독교 내에 카톨릭 30.8%, 외래혼합 기독교 8.6%, 토속혼합기독교 5.4%, 개신교 11.6%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잠비아를 위한 기도제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잠비아 교회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소서. 둘째, 잠비아 교회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갱신되게 하소서. 셋째, 잠비아 젊은이들이 복음으로 새 희망을 갖게 하소서. 넷째, 잠비아 교회가 아프리카 복음화의 선봉에 서게 하소서.

잠비아에서는 이번 KIMCHI 세미나에 Rev. Joseph Imakando와 Rev. Fortune Mwiza가 참석중이다.

고등부 교사 기도회 가져

고등부(부장:노문환 장로)는 지난 5월 27일(목) 교회 기도실에서 교사 철야기도회를 가졌다.

이번 기도회는 오는 6월 6일부터 있을 홍해작전을 앞두고 고등부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고등부에 갱신의 역사가 일어날 것과 고등부 학생들의 영적 부흥을 기대한다.

서울주간기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1. KIMCHI 세미나의 은혜로운 진행과 영적 충만을 위하여
2. 목회자세미나의 은혜로운 진행과 갱신의 역사를 위하여
3.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로 홍해작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예배안내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오전 9:00
	II 오전 11:00
	III 오후 2:00
찬양예배	오후 5:00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12:0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30

교회약도

